고령화 사회에 대한 신학적 고찰

들어가는 말

본고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신학적으로 가지며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신학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글이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의 진입 현실,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문화의 형성과 출현, 고령화된 교회의 구성원, 노인들의 역할, 노인복지사업, 노인들과 가족들의 관계 형성, 노인들과 종교의 관계, 노인과 건강관리, 노인들에 대한 목회적 배려 등의 순서로 정리하려고 한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점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며 구성하려고 한다.

1.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대한 신학적 이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는 얼 듯 보아 쉽게 이해될 듯 하나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 또 고령화 사회란 매우 상대적인 이해이기도 하다. 그것은 점점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죽음마저도 조절할 수 있으며 머지 않아 생명을 조절할 수 있으며 죽음을 초래하게 하는 질병은 전혀 없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그 가능성을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의 장수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합세하여 가설적으로 또는 가상하여 주장하거나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의술의 발달이 그것을 부풀게 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생물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많으며 특히 최근에 모든 질병을 제거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인간의 DNA의 발견과 그것의 지도를 이해하는 길은 극히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아직도 그것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지만 장수하려고 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그것을 위해 정진하고 있으며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더욱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경은 인간의 수명을 70세로 보고 강건하면 80세라고 말한다(시 90:10).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수명이며 그 가능성은 오늘날에도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창 6:3).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수명을 120세로 정해주셨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대가이다. 그렇다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범죄란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서 그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범한 죄라는 뜻이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잠 22:4). 이것은 하나의 잠언이 아니고 인간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범죄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의 수명보다는 더 길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즈음 사람들은 성경대로 120세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수명은 인간이 영생으로 바꾸지는 못해도 의술의 발달과 양

질의 영양 공급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1940년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불과 40세 정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70세를 넘어 80세를 평균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에게 자신감을 불러넣어주면서 인간의 수명이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인간의 수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120세 이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969세를 산 사람 므두셀라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과학자들 가운데도 인간이 살았던 자연 환경과 여러 조건들이 맞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그러한 조건만 맞다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 환경의 회복을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성경의 표현이 조금만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것을 신화적 표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 부분 이야기 식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함께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경우가 많으며 므두셀라의 경우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묘사기법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생명을 단순히 생물학적 입장에서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연계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통해 생명도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즉 인간이 므두셀라처럼 969세도 살 수 있고 노아의 때처럼 120년으로 그 수명을 한정하실 수도 있고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70세가 되든지, 그들이 볼 때 인간이 강건하면 80세가 되든지 할 것이다. 사실, 이보다 훨씬 못 살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 어린 아이 때 죽는 사람들도 많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음이 확실하며 그것을 인간이 넘어설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생명을 고려하게 된다. 인간은 이렇게 생물학적인 존재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 인간을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의 형상임을 수용하게 될 때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는 다른 생물과 같이 수명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생물학적인 차원의 생명을 넘어서 있는 생명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며 동시에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 연장되는 생명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생물학적인 차원의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을 밝히며 인간에게 그것을 얻도록 인도하고 있고 그것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수명이 범죄와 함께 분명히 한계에 있음을 먼저 밝힌 후에도 인간에게 영생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롬 6:23). 문제는 이 영생을 얻는 길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길을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믿음이다. 영생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선

물로 주신다. 또 예수님이 생명이시니(요 11:25, 14:6)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여기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밝혀졌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시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원천이시기도 하다. 이 생명을 얻은 인간은 생명을 영원토록 보전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영원토록 보전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그들을 이 생명으로 인도하여야 할 사명을 받는다(마 28:18-20). 또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요 12:25). 여기서 생명은 영생과 구별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혼, 목숨, 혼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생명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영육 합일체라고 말할 때에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영이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명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영은 이러한 인간의 생명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생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 즉 생물학적인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 즉 영생하도록 보전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장수의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차원이다. 인간은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은 인간의 생물학적 생명만을 위하여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협력하고 돕고 결국 그들도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영생은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 그러나 생명을 이렇게 영생하도록 보전하는 길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증오가 아니고 자기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사람을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희생하고 죽고 봉사하여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섬기는 길이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요 12:26).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요 12:26).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중요한 삶의 의미를 준다.

2.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생계 보장이다. 젊었을 때에 늙을 경우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노인들의 새로운 문화이다. 이것은 자녀들에 의해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를 통한 공공 부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도움임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하고 노년의 생계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공공 부조를 받게 된다는 것이 새로운 문화이다.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지지를 받는 문화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연히 집안의 운영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진 것을 상속하며 부모가 노년을 맞이할 때 그들을 자녀가 돕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 이 공경이라는 말속에는 부모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육신적인 생활의 보장이 없이는 결코 부모를 공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고 계신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 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막 7:10-13).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를 형성하기를 촉구한다. 이것도 형식으로 하지말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부모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며 쉴 곳이 없어 헤매고 다니는 일이 없게 하며 부모 자신들이 공경을 받는다는 느낌을 마음 속으로 갖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도 젊어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계를 보장받고 자기가 젊어서 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나 다른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늙어서도 적합한 일을 하는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나이와 건강에 알맞은 일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경우가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의 즐김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음을 즐기는 차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놀고만 있어서는 삶의 의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젊어서 많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주어지고 건강이 허락하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젊은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많아져서 75세까지 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들의 건강이 신장되고 일할 기회를 버리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늙어서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는 일을 통해 건강을 지탱, 지속하고 삶을 영위하며 후원하는 위치에서 노년의 지혜로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노년이 되어 노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년이 되어 즐길 수 없다면 삶을 잃어버린 경우가 될 것이다. 노년이 되어 일을 할 경우에도 일 속에서 즐기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자원봉사도 포함한다. 늙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늙어서 모여서 담배 연기 속에서 화투나 치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를 부르며 세월의 의미를 말살하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즐거움이 없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늙은 나이에 알맞은 노래를 부르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년에 먼 곳으로 여행을 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지역으로 여행도 하며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리하는 즐거움도 좋을 것이다. 젊어

서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몰랐던 경우도 이제는 쉬어가면서 매사를 즐거움으로 즐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노년의 즐거움, 노년에서의 즐거움, 노년 자체가 갖는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의 진정한 즐거움을 터득하여 알려주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년이 받는 보상이 될 수 있다.

노년에게는 여가 선용도 좋은 선물이다. 노년에 성(性)의 문제도 생활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 노년에도 이혼의 문제와 재혼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 용돈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 노년에서 이러한 일상적 문제를 당할 때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늙으면 어린 아이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노년에 맞는 삶을 영위하여야 하고 노년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들과 전 가족에게 축복을 하며 장차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은 야곱이 늙어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녀들에게 일일이 축복하고 장래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하였다(창 49장). 신학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이며,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며, 더불어 사는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며, 고령화를 삶의 의미로 승화하는 것이다.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젊어서 일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며 젊은이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야곱은 젊어서 형으로부터 장자권한을 빼앗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원한을 사서 결국 형을 피하여 먼 친척의 집으로 가서 살고 평생 그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나그네 신세를 지고 부인과 자녀를 위하여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형을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다. 늙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인간이 사는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그 행동에 대해 직접 대신 벌을 받으시거나 당사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논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며 살아야 하며 사는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러한 맥락에서 삶의 문화 즉 생명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늙을 경우도 생명 문화를 형성하면서 지금까지의 생명 문화 형성을 검토하고 이 세상에서 영생의 문화를 형성하는 길을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생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늙을 경우에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다(잠 22:6).

3. 고령화된 교회 구성원에 대한 신학적 이해

교회의 고령화 현상을 매우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목회자는 교회에서 현재 목회를 하는 가운데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1)]

1) 기독교사상, 2001/11, 50 쪽 이하.

(1) 설교가 경직됨
(2) 예배가 경직됨
(3) 회중의 의식이 경직됨
(4) 기동력이 저하됨
(5) 안정된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려움
(6) 터주대감과 구렁이 식의 태도가 있음

이러한 표현들이 작가의 의도와 일치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잘 표현되었다고 본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할 설교를 걱정하거나 다시 다른 말로 바꿔야 하는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 될 수 있고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사성을 무시한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삶과 결별을 요구하거나 선언할 때 대단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목회자가 젊은 사람이고 교인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라면 사고의 충돌은 더욱 심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이렇게만 생각하거나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보면 위에서 밝힌 내용이 거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어서 교회 안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보겠다.

사실, 젊은이들의 수가 현실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5명이 안된다. 이것은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것은 개선되기 어려운 수이며 인구가 급감할 것이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에는 더욱 더 젊은이들은 적을 것이고 자연히 노인만 있거나 노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문자 그대로 고령화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은 다양한데 충족되지 못할 것이며 교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수는 적을 것이 분명하다. 벌써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또 젊은이들이 교회에 온다면 세대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관심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많은 연구와 실천의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회를 치리(治理)하거나 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는 전혀 그것을 생각지도 않거나 무시하거나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세대간의 차이는 극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배마저도 따로 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것을 교회 생활에서 먼저 배워고 익혀야 할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교회는 세대간의 심한 격차와 함께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예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 무관심하고 노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늘날 교회 시설이 바로 노인들에게 어렵게 만들고 교회에 오는 것

을 전투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마음이 대단히 아프다. 노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교회의 짐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돌이켜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World Cup 축구 잔치가 보여주었다.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W세대가 형성되면서 노인세대와도 더불어 살 수 있다는 확인을 하였다. 물론 아직도 실제 삶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세대, 재산 싸움도 하는 세대, 지나친 개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라는 것을 깨끗이 정리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놀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으리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본 것은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노인들이 교회에서도 젊은이들과 기회가 주어지면 동력으로 변하여 교회를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양보와 관용과 수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인과 젊은이의 상호보완이라는 명제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일 것이다.

교회 안에서 고령화가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현실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로 노인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자리를 굳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기도 군단이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교회에 수도 적지만 기도가 몸에 배지 않은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그동안 늘 기도해 온 것처럼 기도군단이 되어 자신들, 교회, 젊은이, 나라, 세계 평화 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연결식(릴레이식)으로 이어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로 노인들은 고령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즐기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노인들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며 시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알려주며 교회를 지켜온 역사와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어려서부터 지켜온 신앙을 보여주며 삶으로서 전수하며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앙의 욕창이 생겨서 자기 몫도 처리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교회에서 젊은이들의 본(本)으로서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로 노인들은 중심세력에서 보좌하는 세력으로 자리를 옮길 준비를 하거나 진행하면서 젊은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노인들은 교회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일하도록 돕는 것이 그 적절한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주연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연을 하는 것이 기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한 여배우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노인들도 이제는 조연으로 역할을 바꾸면서 이러한 현실도 젊은이들에게 물려주어 자기들도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넷째로 노인들은 교회 안에서 지혜의 집단으로서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야곱이 많은 고생을 하고 인간적인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 것을 보면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스승이 되고 있다. 그는 말년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 원한을 품은 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졌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노인들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지혜를 동원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지혜는 지금과 앞으로의 삶의 원칙이 될 것이다.

다섯째로 노인들은 교회에서 스스로 낮추고 젊은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며 자기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아직도 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가를 느끼면서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은 생물학적인 힘으로는 약하다는 평을 받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강한 카리스마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가 인정하고 특히 교회가 인정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젊은이들의 서포터(supporters)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노인들은 교회의 동력화(動力化) 집단이며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집단이다(약 1:5).

우리는 노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노인들도 사랑과 공경만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의 동기는 사랑이나 도덕적 의무감이 작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지탱, 지속하게 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전하는 사람들이(요 12:25) 더불어 사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요12:24).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 주셨다(요 13장). 노인들을 통해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본이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는 노인들을 통해 변형적 본보기(transformative example)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요구받게 되며 동시에 대안적 사회(alternative society)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 노인들은 교회의 자원이다. 그들은 보고(寶庫)이다. 보고는 창고에 가둬두면 쓸모 없는 것이 된다. 노인들은 교회에서 보고를 열어 내놓은 보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일하도록 권하시며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행되기를 바란다.

4. 노인들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이해: 지혜

성경에 의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잠 9:10). 이 지혜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즉 지식은 이 지혜와 같은 근원을 가진다(잠 1:7).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잠 9:10). 이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욥 28:28). 만일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죽는다(호 4:6).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다(잠 22:6).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 즉 그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잠 22:4). 여기

2) Charles Scriven, The Transformation of Culture, Scottdale, PA: Herald Press, 1988.

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다. 첫째는 지혜의 뿌리 즉 근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노인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한다면 바른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들로부터 그것을 배우자는 것이다. 미래 또는 다음 사회는 지식의 사회라고 한다.[3]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가 첨단 지식이라고 하지만 지혜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은 지혜를 그토록 갈급하게 구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독교는 바른 지혜를 얻는 길을 빨리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혜의 길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인간은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자유를 지켜주는 규칙이 정의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지켜줄 규칙인 정의를 지키려고 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다 인본주의적 자유에 속하는 외침이다. 물론 인본주의가 인간적이고 인간을 위하는 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만 외롭게 남게 만든다. 인간의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의 세계에 한정시키며 오직 인간만을 외치는 가운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갈구하게 되는데 결국은 심연의 현기증을 일으킬 뿐이다. 노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겪으면서 이미 몸으로 경험한 바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말할 때에 벌써 노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고도 잘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더욱이 교회에서는 지혜를 얻는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할 일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은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서 확고한 신앙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지혜의 길은 어려서부터 가르쳐 알게 해야 한다(잠 22:6). 즉 아이 때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반이 형성되어 있다. 즉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과정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는다. 여기에는 많은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일정한 교육과정을 갖고 체계 있게 교육하고 있다. 어린이 때의 교육은 노인이 되어도 계속 남아 있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다(잠 22:6). 노인의 행동은 어릴 적에 배운 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은 어린이 때부터 형성되는 하나의 긴 과정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성격을 형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의 사건들에게 대처하고 반응을 보이게 한다. 교회에는 노인이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그들은 장소만 채우고 자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의 보고를 열어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물리적인 갈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지도를 노인들에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할 때에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노인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면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오히려 지혜를 얻는데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들도 어린이 시절에 잘 훈련받아온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노인은 물리적으로 말할 때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낙도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잘 닦아온 그들의 지혜를 통해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익히게 한다면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며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3) Peter Drucker,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이재규 역, Next Society,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2.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는 세상에서 정의의 길을 가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계명을 간직하며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성경은 일러준다(잠 2:1-2). 이렇게 지혜가 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인간에게 주시며 정직한 사람들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잠 2:7-8). 바로 이 정의의 길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다. 지혜는 바로 이 길을 지켜준다. 이 길은 선한 길이며 정의와 통하는 길이다(잠 2:9).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지혜가 있으며 그 지혜가 인도해 준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할 것으로 예고한다(잠 2:10). 지혜는 선한 길로 부르고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이 길을 의인의 길이라고 하며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한다(잠 2:20). 이 정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갈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그러나 이 정의는 사랑에 근거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정의는 거친 규칙으로 변하여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만일 노인들이 이러한 정의만을 주장한다면 어린이들이 그 길을 가기 힘들 것이다. 아모스는 또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암 5:15). 이러한 정의를 가장 잘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철저한 정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에 근거한 정의를 실현하심으로써 노인들의 지혜의 본이 되셨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노인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보이심으로 그것을 요구하신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것을 행할 것을 촉구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외식을 버리도록 명령하시면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사람이 행동할 때에 밖과 안이 같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의 외적, 내적 기준이 될 것이다. 노인들은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존재 이유를 보일 수 있고 교회의 연속성을 보이면서 앞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지혜를 얻은 자를 복이 있다고 선언한다(잠 3:13). 지혜를 얻은 것은 복을 얻은 것이다. 그 이상의 복은 이 세상에서는 없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 지혜는 오른 손에 장수가 있게 하고 왼손에 부귀가 있게 하며 즐거운 길을 가게하고 평강의 길을 가게 한다. 이 지혜는 생명 나무이다. 따라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라고 선언한다(잠 3:13-18).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생명 나무로 인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에서 노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지혜이며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노인들을 지혜로 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기에 사랑과 정의가 있고 그것을 이행하게 하는 명철이 있다. 우리는 생명에

근거하여 노인들을 공경하며 노인들은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은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의 근간이 될 것이다.

노인이 된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

“르무엘왕의 말씀한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 31:1-9).

지혜는 통치의 원칙과 범위와 내용을 가르쳐 준다. 이것이 비록 어머니를 통하여 전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다. 노인들이 교회에서 할 일을 확실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이 지혜를 행하는 길을 굽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술이다. 그러므로 왕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귀중한 충고로 들어야 할 대목이기도 한다. 특히 독주는 그것을 실감나게 만든다. 그것은 심령을 썩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며 그 색깔로 꼬여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의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며 더 나아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는 평가를 하게 되며(잠 8:1-17),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지혜는 삶을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며(잠 11:1 이하), 바른 길을 가게 만든다(잠 23:19-35). 이것을 받은 아들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부른다(잠13:1). 노인들이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지혜에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신학적 이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보장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보험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과 연금과 같이 고정된 수입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연금은 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공부조의 범위를 지키는 가운데 이뤄진다고 하겠다. 이것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장 액이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바로 이점을 감안하여 생활 여건과 환경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 소득보장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은퇴를 생각하고 일할 수 없는 날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고 자녀들과 친척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건강이 유지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없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여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 보호를 받는 길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공적인 보호 외에 어떤 방법으로 노인들이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는 항상

사회문제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이 점이 교회가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하는 부분이다.

지금 미국문화의 몰락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를 사회의 불평등,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인 붕괴, 지적 능력의 상실, 정신적인 죽음 등 네 가지로 보고 있다.[4]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붕괴이다. 물론 이것 하나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사실, 이 문제에서 나타난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젊은이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특히 한국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진 것은 지식의 세계로 변모해 가면서 더욱 두드러지며 상대적으로 노인 층은 지식의 세계에 적응할 수 없는 세대로 평가되며 지식의 시대 이전의 구조에 익숙한 이들은 뒷전에 앉아 있어야 하며 지혜도 지식에 가려져 쓸모 없는 것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소비문화의 유입과 그것에 대한 젊은이들의 몰입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도 정신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탈지식화해 가는 층으로서 떨어질 가능성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근거를 찾는다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은 노인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교회의 문제로도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 사회나 교회는 노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인들의 문제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은 욕구 충족에 초점을 모으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고 그들의 욕구를 알아내는 방법을 선택하여 왔다. 이것은 장기적인 방법도 모색하였지만 주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는 쪽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것은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겠다. 또 노인들에 대하여 위기관리를 위하고 선심성이 보이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두드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는 늦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 기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고려할 때는 지식기반, 기술기반, 가치기반 등 세 가지 기반 위에 출발한다. 그렇지만 노인복지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지식기반과 기술기반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부터 인도주의적인 기반 위에 출발한다고 함으로써 가치기반이 인도주의라는 막연한 것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도주의란 공동의식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오늘과 같이 당파와 인종과 종족의 구별이 더욱 심하게 구별되면서 적대시하는 과정에서는 혼돈이 올 때가 많다. 어떤 때에는 국가와 국기라는 큰 제목 아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는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놀이문화에서는 공통인수를 찾기 쉽지만 이익의 분배나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경험을 안겨주고 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

---

4) Morris Berman, The Twilight of American Culture, 심현식 역, 미국문화의 몰락, 서울: 황금가지, 2002.

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도주의의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contract)도 아니고 언약(covenant)의 수준이 있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계약은 쌍방 간에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으로서 일방이 조건을 어길 때에는 그것을 파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언약은 계약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조건부가 아니며, 따라서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먼저 언약의 형태로 맺고 사랑하시며 그토록 여러 번 인간들이 그를 반역하였어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신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노인들을 사랑하고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차원보다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도 자원의 제한 때문에 국가를 돕는 차원에서 그리고 보완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고 안전 망의 하나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 선생에게 사회복지사업의 한 면모를 보여주시고 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u>너도 이와 같이 하라</u> 하시니라” (눅 10:25-37).

우리의 초점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것은 이웃의 개념이고 그 이웃에 대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에 있어서 방법은 좀더 “현대적”이어야 되겠지만 그 정신은 같은 것이다. 이웃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인데, 바로 노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있지만 노인들이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때 노인들과 우리는 이웃 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이 노인들이 우리의 부모와 같이 생각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다. 가까운 이웃은 지리적인 이웃도 있지만 마음으로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위의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이웃을 의미한다. 노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사랑이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 가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랑의 차원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기반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인도주의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행동인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가변적일 것이고 조건적일 것이고 따라서 계약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본 받는 생명 살리기와 생명을 사랑하는 구원의 작업으로서 노인사회복지사업을 이해하는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은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신학은 사회복지사업의 방법론을 수용한다. 그렇다면 사회문제가 된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할 때 확실한 가치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업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가치기반과 기술기반과 지식기반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과 신학이 충돌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할 때 신학이 필요 없다고 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신학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할 때 반드시 가치기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그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신학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업을 교회가 실천하려고 할 때 교회 사회복지사업 또는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은 반드시 가치기반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만일 다양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가치 기반을 갖는 것은 좋은 실례가 될 것이며 동시에 교회는 신학을 할 때 사회복지사업의 방법들을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학이 사회복지사업을 대할 때 단순히 수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업이 이차적인 자료가 아니라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의술이 복음을 전하는 일차적인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도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신학의 폭을 넓히며 복지목회 또는 복지신학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교회에서도 메시지를 전파하는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을 신학화 하는 작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정상화(normalization) 하려고 하는 것이다.[5] 이것은 노인을 찾아간다는 개념이며, 보통의 생활이 되도록 환경을 맞추어 준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정상화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번역하고 그것을 “아무리 장애가 중증이라도 보통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추어 준다”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6] 노멀라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한다.

“1. 소수의 그룹으로, 각 방에서, 일상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2. 남녀 양성이 같이 하는 세계에서 생활하도록
3. 보통의 일상적 리듬을 경험할 수 있도록
4. 생활공간과 일하는 장소가 다르도록
5. 식사나 음주 등을 가족과 같이 하듯이 몇 사람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6. 자유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

5) 오쿠마 유키코, 노인복지 혁명, 노명근, 노혜련 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6) 같은 책, 100 쪽.

7. 여가 보내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성에 맞추어서 설계되고 사계절에 따라 변화를 주도록
8. 환경은 연령에 따라 조정하도록
9. 청년들은 어버이로부터 독립이 되도록."[7]

신학은 바로 노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추진하게 하는 생명의 이론이며 실천이다. 신학이 사회복지사업과 만나는 것은 신학의 폭을 넓히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신학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사회복지사업 자체도 신학을 만나게 될 때 가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며 그 내용을 더욱 든든하고 폭 넓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최근에는 영성을 삽입하고 있으며, 윤리와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전부터 논의하고 있었으나 강하게 실천되지 않고, 있으나 없으나 같은 형식을 따르게 되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분량의 연구가 있으며 신학과 사회복지사업이 윤리를 통해 만날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특히 신학의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신학의 실천으로서 수용하는 경향을 낳게 된 것이다. 더욱이 신학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게 하는 당위성마저 부여하고 있다. 재가복지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가운데 재가복지의 필요성이 나오지만 신학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게 하고 그것을 지키는 정의를 원칙으로 하여 삶을 사는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기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요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8] 여기서부터 신학은 그 본질상 실천성을 부각하는 기회를 맞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신학이라고 하여도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으며 복지목회라는 말을 해도 생동감이 난다. 복지목회는 목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이 동참하는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복지를 누리게 하는 것 즉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위로서 이해한다면 복지목회는 사회복지사업을 동반하는 하나의 새로운 신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하는 이론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노인들과 가족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이해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히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노인을 가족과 연대해서 생각할 때 "흔들리는 가족, 외로운 노인"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9] 이것은 흔들리기 전의 상태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가족이 흔들리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외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수많은 전쟁과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행한 삶을 거친 지금의 노인세대는 자식의 생산은 곧 부모부양이라고 생각했던 세대, 가족을 위해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세대이며, 그 세대들에게 가족은 생명이고 영원한 안식처와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변해

---

7) 같은 책.
8) 맹용길, 기독교윤리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제 4장.
9) 김익기 외, 한국 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서울: 생각의 나무, 1999, 81 쪽.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 가면서 일궈놓은 가정은 해체되어 가고 있고 노인들이 지위는 준비되지 못한 채 급 추락하고 있다."[10]

이러한 탄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오늘의 가족은 노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생활이 넉넉한 가정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식구가 많으면서도 생활공간이 작은 집에서는 노인들이 사실, 갈 곳이 없거나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편안치 않으며 자녀들을 돌보는 보조적 역할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규모가 대 가족에서 핵가족화 해 가는 현상 때문에 오래 전부터 특히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부터 노인의 기능, 효용 등의 면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족의 해체현상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젊은 부부도 갈 곳이 없거나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은 더더욱 갈 데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며,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해 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이나 역할이 대단히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노인들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며 밖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는데도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며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자연히 권한이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농업이 가정의 주 생산 수단이고 경제를 좌우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의 전수나 권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산업화로 인하여 경제가 산업에 의하여 좌우되고 노인들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침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권한 약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젊은 부부가 산업전선으로 나감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떠맡아 보호해야 하며 양육까지 책임을 지고 생활비를 그들로부터 받아 관리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농촌인구를 고령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교회 인구의 고령화는 그보다 다른 이유가 있다.

최근에는 가족이 매우 민주적인 경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젊은 부부 위주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노인들의 위치가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경우가 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교육이나 사회의 추세가 민주적인 것을 요구하며 젊은이들의 반항이 아니라 요구를 들어주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으며 때로는 자녀들과 타협도 일어남으로써 민주적인 훈련을 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보면 경제가 인간의 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창고의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을 통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재물보다는 지식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자녀들이 교육을 많이 받음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입지가 자연히 좁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효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공부를 많이 시키지 말라는 말이 전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노인들이 가정을 형성하였고 지금까지 지탱하여 왔고 우리나라를 살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인에 대한 가족적 관심을 가진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

---

10) 같은 책.

가 되었다. 노인들은 우선 집안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편리와 안정과 건강이 필요하다. 집 안에서 활동할 때에 노인들을 보호하는 구조와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감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 건강을 지탱,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은 집안에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질병에 걸렸을 때 노인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세상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되며 도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신학은 여기에 큰 의미를 준다. 이것은 다음에 종교의 문제를 다룰 때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시 23편),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신다는(시 127:2) 보장을 얻게 된다. 신학은 이것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최근에 신학은 가족에서 노인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노인복지를 생각하면서 가족복지의 차원을 형성한다. 노인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그들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공동체를 구성하는 귀한 요소이며 가족의 경계를 넘어설 때 사회의 일원이며 교회적으로 볼 때는 교회 가족의 귀중한 구성요소이다. 신학적으로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들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선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 지금 어려움은 없으실까? 만일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일까? 내가 그것을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 노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크지만 정서적, 신체적 부양과 같은 관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 노인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부분 안정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산성이 되며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이 노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부양이다. 하나님은 정신적 즉 신앙적 보장을 통해 삶을 보장하는 분이심을 믿고, 자녀들은 실제적인 삶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안정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들과 가족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7. 노인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이해

노인과 종교의 관계는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종교가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처하는 방법으로 서술될 때에 종교와 대처능력과 고령의 과정이 서로 관계가 된다. 고령의 노인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였고 대처해 온 경험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을 종교가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꺽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시 3:1-8).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궤휼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 4:1-8).

이 두 곳만 보더라도 종교가 노인들을 위해 대처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이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지만 종교가 단순히 하나의 대처 방법만이 아니라는 것도 인지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대처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밝혀졌다. 이것은 성경에서만이 아니고 연구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11] 종교는 결국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교는 질병을 대처하는 능력을 제공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자신이 예측하는 자신의 죽음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데 많은 좋은 기여를 한다는 것이 조사에 의해 입증되었다.[12] 그렇다면 종교는 노인들이 대처하는 가운데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묻는 것을 볼 수 있다.[13]

(1) 자신을 지탱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대처 능력을 제공한다.
(2) 변화하는 환경의 정복을 성취하도록 대처 능력을 제공한다.
(3) 유한성을 이해하도록 대처 능력을 제공한다.
(4) 친밀감을 성취하도록 대처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종교가 대처에 실패할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도로를 가게 된다. 그리고 흐름을 역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특정한 상황에서 삶에 이르는 방법들을 보는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종교와 대처 능력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전이다. 대처 능력의 과정에서 종교가 역사하는 것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후에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증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영적인 자아를 연속하게 하는 데서도 나타났다.[14] 나이가 들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실감을 갖게 되며 실제로 그러한 위치에 온다. 이것은 노인들의 사회와 문화 안에서 일어난다. 또 사회적 범주인 특정한 자리에의 청빙, 직업으로에의 초청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종교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 자아를 연속하게

11) Melvin A. Kimble,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A Handbook, Minneapolis, MN: Fortress, 1995, 52 쪽.
12) 같은 책, 50 쪽 이하.
13) 같은 책, 57 쪽 이하.
14) 같은 책, 68 쪽 이하.

만들어준다. 종교는 그러한 환경을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종교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편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연속적인 이미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 연속성은 매우 귀하다. 변화도 연속성의 주제에 관계하여 평가된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 연속성의 중심 주제는 사람들이 고령에 적용시키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대처하는 장기간의 삶의 양식을 보전하고 지탱하려고 시도한다.[15] 특히 내적 연속성은 종교가 가치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명상과 기도가 모두 이렇게 중요한 대처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외적인 연속성은 지리적 위치, 관계, 활동의 실재를 나타나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정신적 지도들을 만들게 한다. 이 지도들은 중요한 대처 자원으로서 기여한다. 관계는 챔피언십, 사회적지지, 소속감을 위한 자원이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다. 활동은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존경을 얻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종교적 조직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외적 연속성의 중요한 차원이다. 예를 들면 예배의 외적 측면이 충족시킬 수 있는 연속성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성 이론은 후기의 삶에 영성을 경험하는 것이 무작위적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구하고 명상하고 영적인 발전을 오래도록 진화할 것을 예측하는 것이다. 연속성 이론은 종교와 영성이 인간의 삶의 진화에 어떻게 적합한지를 보기 위한 생동감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16]

이러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오늘날 종교 생활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자아가 연속성을 갖게 하는 경험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려고 하는 삶을 살기도 하며 지혜를 얻기도 한다. 또 종교를 통해 변형을 일으키며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실례들이 히브리 성경이나 기독교 성경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영적인 발전도 볼 수 있으며, 최근에 인간의 영성에서 발전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 영성은 낡은 것을 능력 있게 만들고 미래로부터 오늘에 희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보면 종교의 기여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의미를 제공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처럼 보일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종교는 어렸을 때 가지는 것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신학이 고령에 대해 다양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생물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의 현상이 고령에 대해 다양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이 피상적인 관계로만 이어질 때 다른 이유들을 이끌어내는 결론을 지지하는 데만 사용될 뿐이다. 사실, 신학은 고령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이나 논의를 하는데 기여하거나 조명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관계는 별로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신학은 그 본래적인 의미나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사실, 신학은 다른 분야가 소개할 수 없고 기여할 수 없는 부분을 기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된다. 고령에 대해 인간적 복지와 의미의 원천이 역점을 두어 논의

15) 같은 책, 69 쪽.
16) 같은 책, 72 쪽.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성이나 영생의 소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소망을 주시며 피난처와 위로가 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기르시는 목자로서 돌보시는 큰 계획과 섭리가 신학에 의하여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고령의 복지적 차원에서 권리, 안전, 성취, 개인적 위로,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 회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지만 하나님이 고령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쉽게 망각하고 있다. 즉 복지 속에 책임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신학은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여기서 신학적 관점은 고령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다. 신학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 기독교인의 소명과 청지기 직(職)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고령의 복지에 의미를 주며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에게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신학이 마련하게 하는 최대의 복이며 복지사업이다. 신학은 이것을 반드시 인식하게 해야 한다. 신학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예배에 참여하고 선교적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책임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구성적 과제를 이행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삶을 성실하게(faithful) 이행하고, 믿고 아는 것처럼(요 6:69),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intellectual),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여기에 필요한 도덕적인 책임(moral responsibility)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은 여기서 자기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며 복지의 정신을 구성하는 길을 마련하게 하며 가치의 기반을 갖게 한다.

8. 노인과 건강관리에 대한 신학적 이해

하나님은 노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의 영혼과 육신과 영을 사랑하신다. 즉 그들을 사랑의 통합적인 방법으로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건강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육신의 건강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심령, 영혼, 목숨의 건강도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과 영혼의 건강이 함께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영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때만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신학적으로 건강관리라는 그러한 통합적 의미에서만 수용된다.

우선 일상적인 건강을 생각할 수 있다. 65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85%는 적어도 한 가지의 만성적인 질병과 30%는 세 가지 이상의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17] 그래서 노인들은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며 그 결과 한 가지 치료가 다른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게 된다. 이것은 해를 끼치거나 해치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해를 줄 잠정성을 보유하게 만든다. 이러한 질병 가운데는 우울증이나 사회에 대한 거부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좌골신경통과 같은 것은 노인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격리시키며 파킨슨 병도 삶을 제한시킨다. 심장병, 영양실조, 패결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들이 노인들을 괴롭히며 활동을 제한한다. 이러한 질병들은 노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대한 느낌도 다르게 만들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같은 것도 사라지게 만든다. 그렇지만

17) Mark E. Williams,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s Complete Guide to Aging and Health, New York: Harmony Books, 1995, 4 쪽.

그러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며 의사들이 지금까지의 질병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점점 감소하게 만들고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면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치유하여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를 희망하면서 질병 자체보다는 오히려 고령으로서 남은 삶을 사는데 생산성, 창의성, 복지, 행복 등과 같은 것에 더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찾고 지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정확한 질병 예측을 통해 건강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고령이지만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능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모으려고 한다. 노인들이 독립성 즉 독자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기관들의 역기능 또는 기능실패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될 때 인간답게 사는 건강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다. 또 신학이 건강의 지탱, 지속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신학이 기반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의 질과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학이 건강에 관한 한 치유(cure) 보다는 보호(care)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또 기능(function)이 진단(diagnosis)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18] 그러나 이것은 건강의 참 의미를 언급하기보다는 건강의 현상을 보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다. 건강은 현재 관리하는 차원만이 아니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는 건강의 근원을 찾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의 건강을 보시기에 좋다고 하실 정도로 좋은 상태와 조건들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건강을 나쁘게 그리고 나빠지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회복이나 치유는 근본적인 것이며, 생명의료윤리학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21세기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19]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 기초한 것이며 치유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치유도 한계가 있다. 즉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영역을 인간이 넘어설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권위와 범위를 지키면서 인간이 치유하며 그 치유의 한 가지 작업으로서의 보호이거나 예방으로서의 보호이거나 예방보다 더 근본적인 발전, 개발 등을 통해 질병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학은 바로 이러한 한계와 인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한계와 방향을 볼 수 있게 한다. 기능이 진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진단 없이 어떻게 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겠는가? 기능을 중요시 한 것은 현상적인 판단이며 가시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호나 치유, 기능이나 진단이 하나의 맥락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한다. 신학은 바로 이것을 촉진시키며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고령화 즉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기관들이 진화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수반하는 진행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과정이다.[20] 또 나이를 먹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서도 늙어 가는 것은 개인차가 대단히 크다. 점점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나이와 수명의 길이에 있어서 동물의 종의 차이를 결

---

18) 같은 책, 8 쪽.
19) Howard F. Didsbury, ed., FutureVision: Ideas, Insights, and Strategies, Bethesda, MD: World Future Society, 1996, 279 쪽 이하.
20) 같은 책, 9 쪽.

정하는데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자적 요인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난 같은 종 가운데서는 환경적 요인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포가 나이를 먹는 것은 계속적으로 분화하던가, 쉬고 있지만 분화하도록 자극을 받을 수 있던가, 복제 단계를 지나든가의 경우이다. 나이가 들면 기관의 기능이 계속해서 저하되며 육체적 체계를 규정하는 것도 계속해서 저하된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한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기한이 되어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어 가는 것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 즉 치매와 같은 질병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서 치매는 본인은 잘 모르는 것이지만 곁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치매는 정책 사업으로서 시설을 확충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향상시킬 것을 요청하며 치매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재가서비스 사업도 확대하고 치매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개발할 것을 주장한다.[21] 문제는 치매 자체의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고 치유는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을 들을 때 매우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때에 신학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노인들이 중병으로 죽어갈 때 호스피스를 권장하는데 아름다운 봉사자로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22] 이러한 어려움을 신학은 가족의 범위에서 즉 가족이 먼저 맡아서 치료하여 회복하거나 보호하는 일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기 전문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하되 다만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혼돈을 단순히 무질서라고 제쳐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혼돈이 질서의 한 부분임을 최근에 인식하듯이 비록 질병으로 고생한다 하더라도 주님 부르실 때 새로운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피차 사랑하는 가운데 보호하는 것을 요구한다.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각자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보호하여야 하는데 가족의 의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복지 또는 가족치료를 통해 노인의 삶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건강의 소중함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를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틀을 다시 인식하게 하며 노인을 통해 미래의 자화상을 그리게 하며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형성해 가도록 본을 보이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신학적 이해는 단순히 인도주의에 선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노인의 건강관리와 노인보호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지켜져야 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 신학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믿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한다.

9. 노인들에 대한 목회적 배려에 대한 신학적 이해

먼저,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이 사회를

---

21) 이성희, "한국 치매노인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과제"
22) 박남규, 호스피스: 아름다운 봉사자, 서울: 국민일보, 1999.

형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한 사람들이다. 노인들은 정치적으로도 그 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노인들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할 추세이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15%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노인들이 사회를 형성하는 가운데 사회를 건전하게 형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자신들이 안심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노인들은 자기들이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 사람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보장을 받는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안내하는 것이 신학이다. 신학은 인간이 갖는 생명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며 교회는 신학을 통하여 노인보호라는 과제를 이행하도록 한다. 신학은 목회를 통해 생명 보호가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주며 사랑이냐? 도덕이냐? 라고 묻는 질문을 통합하며 그것을 포괄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전체를 다루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 준하여 이미 필자는 여덟 가지로 밝힌바 있다.[23]

(1)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모델을 따라야 한다.
(2) 교회는 기본적으로 봉사(diakonia) 실천 모델을 따라야 한다.
(3) 교회는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모델을 이행함으로써 노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결정과 행동 방향 설정과 행동의 질을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4) 교인은 노인을 공경하고 봉사하는 모델을 교육해야 한다.
(5) 교회는 노인들의 복지모델을 추구하는데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6) 교회는 노인들을 돌보는 목회(pastoral care) 모델을 이행해야 한다.
(7) 교회는 교인들이 참여하는 목회 모델, 즉 평신도 목회가 이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8) 교회는 노인문제를 가족복지모델 패러다임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필자는 「복지목회론」과 「노인복지목회론」을 통해 생명목회 신학을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단순히 노인목회가 도덕적 차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의 차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생명을 가치로 하여 그것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노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목회가 노인들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모델로서 case management를 이용하여 목회의 방법과 기술로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정리하고 목회와 신학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다.

Case management란 무엇인가? Case management는 “서비스의 적정 패키지를 조정(調整)하고 모니터하기 위하여 인간 서비스 전문가를 사용하는 개입”이다. 또 그것은 “서비스 네트워크 안에서 일련의 논리적 단계들과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그것은 클라이언트가 지지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보증한다.” 그것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의 엄격성, 단편화된 서비스, 어떤 시설의 오용, 접근 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문제 해결 기능”이다.[24]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본다면 case management는 서비스나, 기술이나 체계나 과정보다는 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case management는 목표들(objectives)을 가진다. 즉

23) 기독교 사상, 2001년 11월 호, 127 쪽 이하.
24) Ann E. P. Dill, Managing to Care, New York: Aldine de Gruyter, 2001, 4 쪽.

그 목표들은 공식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키기, 서비스 옵션에 관하여 이룩한 결단을 알리고 돕기, 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을 보증하기, 서비스 효과성과 생산성을 감독하기, 흔히 비인간적인 체계에 대해 인간적인 링크를 마련하기 등이다. Case management는 또 위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포괄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시간 서비스 프로그램, 연속 서비스 프로그램, 동등하지만 복잡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에 필요한 정보 체계, 기록보관 체계, 행정 체계, 평가 체계를 함축하고 있다. Case management의 기능은 하나의 체계로서 사례의 정체성 확인, 욕구 사정, 보호 계획 개발, 서비스 이행과 조정,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시간을 넘기는 서비스, 클라이언트 조건의 정기적 사정(査定), 서비스 계획을 적합하게 조절하거나 단절하는 것을 포괄한다. Case management는 다면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을 탐구하면서 간호, 사회사업, 의학 전문 분야의 어떤 부분 등에서 발견한 기존 개별 사회 사업의 실천 등을 기초로 일을 추진한다. Case manager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통합적인 견해를 채용하며 다양한 자원으로 인하여 준비되는 보호를 조직하고 동등하게 만든다. 초점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서 서비스의 이야기와 변화에 관한 것이다. 서비스의 전달 위치는 보호의 여러 가지 강열함, 수준, 전문성을 수반하면서 다양한 셋팅(multiple stteings)을 초월할 수가 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노인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게 한다. 특별히 case management의 통합성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며 인간을 살아서 일하는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게 하며 생명을 향해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Case management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수준의 목표들과 체계 수준(system-level)의 목표들이 같은 목표를 놓고 다른 측면을 나타냈을 때 제도적 셋팅에서 자리배치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 패키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일어났다. 체계 수준에서 보면, 그와 같은 노력들은 제도적 보호의 인간적인 면과 질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 억제에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보면, 제도적 보호를 예방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보호하는 것과 독립성을 갖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억제를 가장 적게 하는 환경에서 보호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른 한편 case management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추구하는 목표들은 서비스 체계의 기능과 관련하여 역동적 긴장 가운데 갈등을 가질 수도 있고 공존할 수도 있다. Case management의 이중적 초점과 복합적이고 다이나믹한 특성은 그것이 시도하는 문제들의 복합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본성을 반영한다. Case management는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진화하였으며 그것의 요소들은 근본적으로 그것의 조직, 운영, 기술, 목표들을 형성한다.[25] 이것이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정상화를 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국에서 지금 노인들이 가야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들에게 질 높은 보호를 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독교는 창조 이후 보여준 삶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상시키려는 모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맺는 말

---

25) 같은 책, 7 쪽.

본고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현실로 수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도 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보면서 노인문화의 출현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즐김과 여가 선용 등의 새로운 삶과 과제 즉 노인 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고 그들의 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부모 공경과 복지서비스 즉 사랑과 의무가 교차하는 가운데 생명의 관점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할 것을 보았다. 교회에도 고령화되어 가며 그러한 구성원들 때문에 목회의 방향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경직성을 피하고 젊은이들의 희망을 수용하고 젊은이를 돕는 역할을 하며 기도의 용사, 기도의 연속, 적극적 수용, 즐기고, 사랑의 역할을 하는 노인 구성원들의 역할을 찾게 한다. 노인들은 지혜의 집단으로 공헌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마땅히 할 일로서 지혜의 길로 인도하며 정의의 길로 안내해야 한다. 노인복지사업은 공공부조를 통해 가능하게 되지만 안전망으로서 민간단체의 사업이 동조해야 하며 특히 종교 또는 기독교의 복지사업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사업은 언약의 수준에 있어야 한다. 노인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현실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가족들의 관계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편안한 쉼터를 찾으며 삶의 기본 단위로서 모범과 규범이 되어야 한다. 노인과 종교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수명이 길고 건강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고 대처능력도 받는다. 노인은 건강관리에 매우 적극적이어야 한다. 즉 노인들이 건강해야 한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치유와 보호를 통합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건강은 더불어 사는 삶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합적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하여 노인들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찾아야 한다. 인간의 노력으로 생명을 연장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되며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요롭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물을 떠난 고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Case management가 노인의 신학적 이해에 하나의 본보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신학은 여기서 노인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